

‘가든 스쿨’ 개설

실내외 조경교육을 체계화 한 마스터 과정

요즘 식물이나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정원을 꾸미고 싶은데 시공법이나 식물의 습성을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주)하영그린(대표 하현영)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실내·외 조경의 대중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조경사회와 함께 가든스쿨(실내·외 조경 마스터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가든스쿨은 일반 대학이나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힘든 이론 및 현장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조경이라는 학문을 실무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일반 대학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실내조경 설계와 디자인,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시공테크닉, 시공실습 등 이론과 실무를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과제 제출과 평가, 장학제도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교육생이 각자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강사진은 한국조경사회 소속의 현 대학 조경학과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풍부한 이론을 정립하고, 실무 경험이 많은 (주)하영그린의 실무자들이 실무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가든스쿨은 오는 3월에 개강하여 24주(6개월)동안 이루어지며, 교육대상자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일반인이 아닌 화훼업 종사자나 플로리스트로 제한을 하고 있다.

꽃조형물과 실내·외 정원에 있어 급부상하고 있는 하영그린의 새로운 시도는 발전하고 있는 조경산업에 있어 또 하나의 디딤돌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전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가든스쿨(실내·외 조경 마스터과정) 문의 및 접수
(주)하영그린(Tel:02-573-1313, 577-3636 homepage: www.hygreen.co.kr)



▲ (주)하영그린에서 제작한 TV 드라마 '현정아 사랑해'의 세트장.

개인휴대단말기(PDA)용 증권거래 서비스 특허 획득

무선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아이엠네티피아(www.imnetpia.com)는 SK증권과 공동으로 개발한 개인휴대단말기(PDA)용 증권거래 서비스(모바일로)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PDA 증권거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LG, 삼성, 현대 등 대형 증권사들과 특허 분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엠네티피아는 'PDA용 증권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 후 2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최근 모두 각하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에는 증권주문 및 시세처리 시스템 등의 공통 플랫폼, 독립된 과금 시스템과 PDA 단말기의 인증절차,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엠네티피아 조준희 사장은 '증권사들이 PDA로 증권거래 서비스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권주문 및 시세처리 플랫폼에 대한 권한을 획득했다'며 '광범위하게 특허권

이 적용돼 로열티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만큼 LG, 삼성, 현대증권처럼 자체적으로 PDA 증권거래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추진중인 업체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엠네티피아와 SK증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바일로는 SK, 교보, 한화, 곳모닝신한, 동양, 메리츠, 동원 등 7개사가 가입했고 1만5,000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또 현재 1~2개 증권사가 모바일로에 추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번 특허 취득으로 무선 증권거래를 추진중인 업체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독자적으로 PDA 증권거래 서비스를 추진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모바일로측에서 획득한 특허권의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공무원 '현수막 철거기구' 발명하여 화제

현직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 철거와 가로수 가지치기에 용이한 기구를 개발, 발명특허(제0370751호)를 획득했다. 더구나 자신이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년여 동안 연구를 거듭해 발명한 기구여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울산시 교통관리과 이재우(37. 지방행정주사보). 그는 지난 2000년 자신이 개발해 출원한 '현수막 제거 겸 가로수 가지치기 기구'로 최근 발명특허를 취득했다. 이씨가 98년부터 2년여 동안 연구해 발명한 이 기구는 낚싯대처럼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봉과 끝부분에 낚모양의 커트, 톱, 니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은 조절과 길이 조정이 쉽고 커트와 니퍼는 현수막을 지지하는 나일론 끈이나 철사를 손쉽게 자를 수 있으며 톱은

필요에 따라 장착해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종래에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해 일일이 높이에 맞는 봉에 나무 가지치기용 전지가위를 조립해 사용했는데 잦은 해체와 조립에 따른 번거로움은 물론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는 철사를 제대로 자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씨는 '지난 98년 10월부터 2001년 1월 사이 울산 중구 청 건축과 도시미관팀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구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철거업무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아보기 쉬운 숫자상표 출원 쇄도

최근 특허청에 숫자상표의 출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문자 상표보다 의미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96년 이전까지 숫자를 포함한 상표 출원이 한해 평균 200여건에 불과했으나 증가추세를 거듭하다 99년부터는 1,0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양적 증가와 함께 상표의 내용도 아이디어가 반짝인다. YK038, opt002 등과 같이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표들도 좋은 반응을 얻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숫자상표가 범람하면서 지난해 336건의 신청건수가 도형 등과 결합돼 등록되지 못했다'며 '숫자나 기호 등 식별력 없는 도형과 결합된 숫자 상표는 등록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름이마르 Quality guaranteed

오름이마르는 한국표준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 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직 최상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카보나는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굶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